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

- 본고에서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관련 보건서비스 인지도, 정부의 예산투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음

- 조사결과, 국민들의 기후변화가 건강영향에 미치는 인식 정도는 황사나 신종플루와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기후변화가 건강위험이 되는 시점을 현재와 향후 10년 이내로 응답하여 비교적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조사개요

- 이 조사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조사대상은 20대 이상 국민 1,000명으로 하였음

· 전국 16개 시도별 각 시·군·구에서 보유한 인명 전화번호를 데이터화해서 표본프레임으로 사용하였으며, 통계청의 2011년 추계인구의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분포를 적용하여 인구비례할당방식으로 1,000명의 조사대상을 추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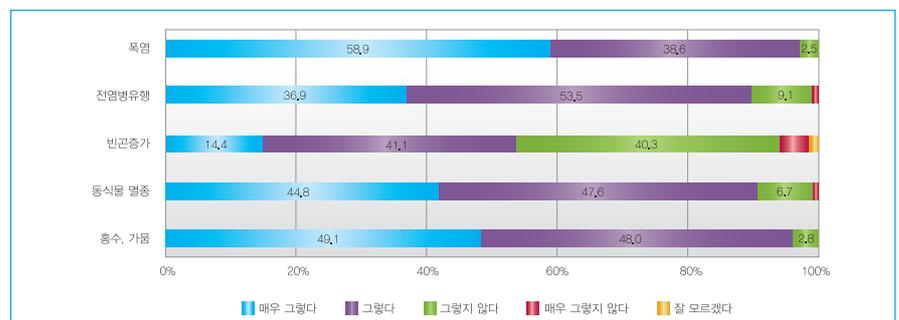
○ 조사방식은 전화면접조사를 적용하였으며, 2011년 6월 23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하였음

2. 조사결과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와 이들 환경적 요인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정도는 폭염 97.5%, 홍수나 가뭄 증가 97.1%, 동식물 멸종 92.4%, 감염병 유행 90.4% 순으로 높았으며, 확인 항목으로 넣은 빈곤 증가는 55.6%로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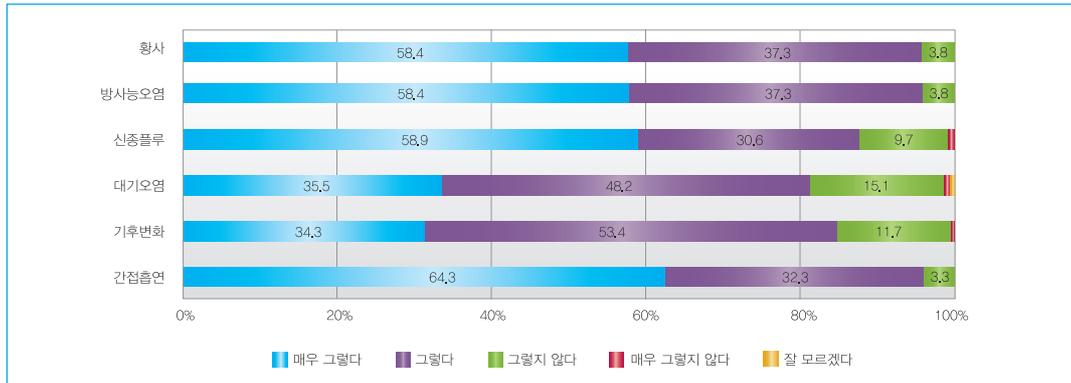
[그림 1] 기후변화와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



□ 기후변화 건강위험과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간접흡연(96.6%)과 황사(95.7%), 방사능오염(95.7%) 등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었으며,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은 87.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그림 2]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건



○ 조사대상의 특성이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기후변화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응답 유무를 결과 변수로 해서 다변수 분석을 수행하였음. 조사대상 특성이 기후변화 건강위험 인식에 주는 영향을 반영한 교차비를 살펴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2.61배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20-30대 연령군에 비해 3.31배 높았고,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가 진보적인 경우에 비해서 2.08배 높았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음

<표 1> 조사대상 특성이 기후변화 건강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수 분석*

	응답(%)	전체(%)	교차비	95% 신뢰구간	P
성별					
남자	407(83)	491(49)	1	-	
여자	470(93)	508(51)	2.61	(1.64, 4.14)	< 0.001
연령군					
20-39세	318(82)	390(39)	1		
40-59세	371(91)	406(41)	2.66	(1.70, 4.17)	< 0.001
60세 이상	188(93)	203(20)	3.31	(1.62, 6.74)	0.001
학력					
중졸 이하	158(93)	170(17)	1		
고졸	356(87)	408(41)	1.02	(0.48, 2.18)	0.97
대졸 이상	358(86)	416(42)	0.91	(0.41, 1.99)	0.81
직업					
무직	320(86)	372(37)	1		
비육체직	101(87)	116(12)	1.07	(0.68, 1.69)	0.77
육체직	456(89)	511(51)	1.09	(0.55, 2.16)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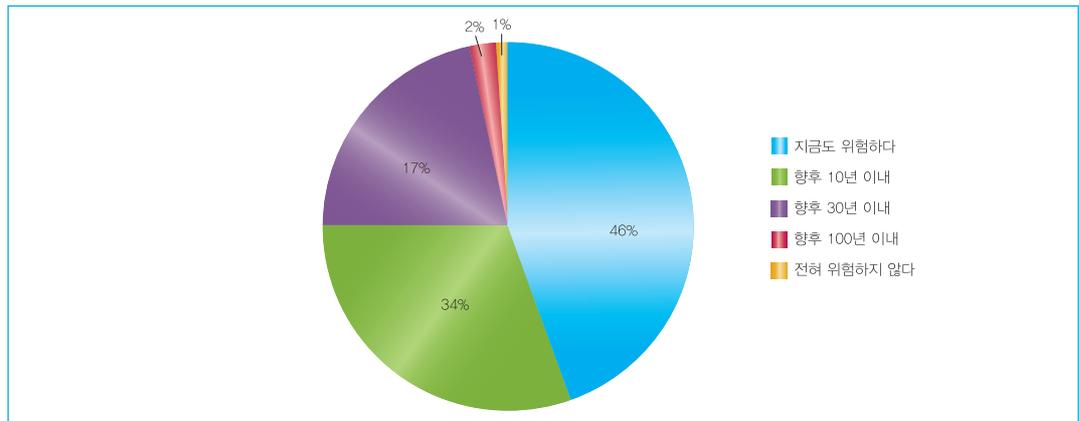
〈표 1〉 계속

	응답(%)	전체(%)	교차비	95% 신뢰구간	P
정치적 성향					
보수적	452(90)	503(50)	1		
진보적	382(86)	446(45)	2.08	(1.39, 3.13)	< 0.001
무응답	43(86)	50(5)	1.18	(0.46, 3.01)	0.732
종교					
있음	359(85)	420(42)	1		
없음	518(89)	579(58)	1.18	(0.79, 1.75)	0.42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를 위하여 적용한 표본추출방법에서 지역을 제외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지금도 위험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5.4%, 향후 10년 이내는 3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혀 위험하지 않다(0.9%)는 응답한 경우는 극소수여서 비교적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기후변화가 건강 위험이 되는 시점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에 취약한 인구집단을 항목별로 묻은 결과, 어린이(95.7%)와 노인(95.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국내 거주 외국인(82.1%)이 가장 낮았음

[그림 4] 기후변화에 취약한 인구집단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이 증가하는 질환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보다 향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질병을 질문한 결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응답한 비율(94.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질환인 열사병이 92.7%로 높았으며,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손상(87.4%)과 말라리아(82.5%)나 설사 및 식중독(83.8%)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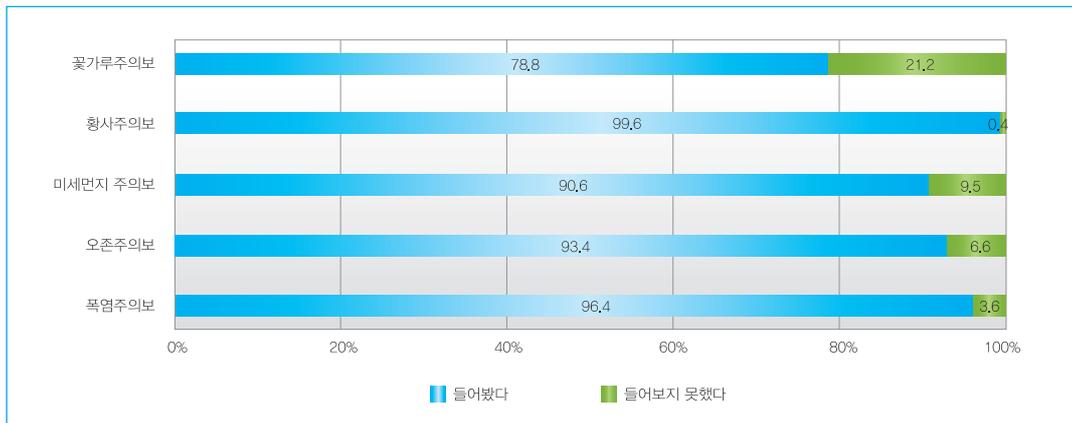
[그림 5]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보건서비스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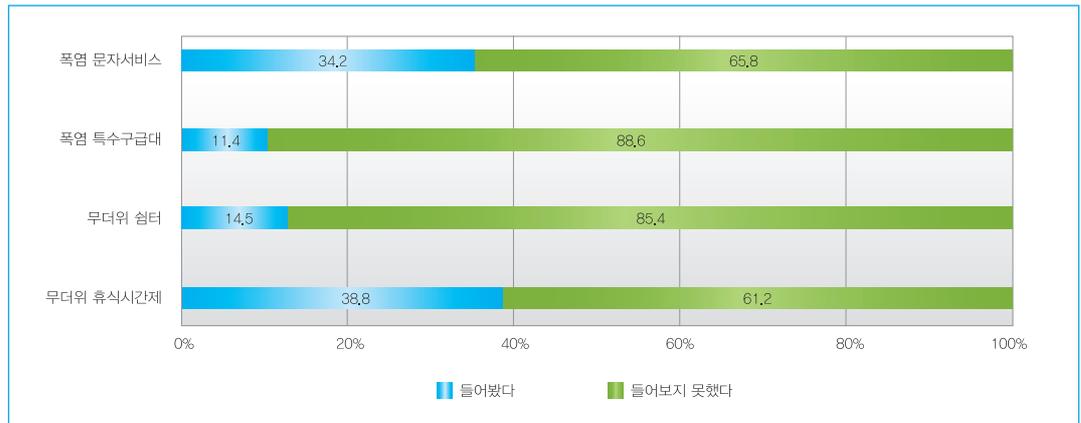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보건서비스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 기상청 등 관련 기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황사주의보(99.6%)가 가장 높았고, 폭염주의보(96.4%)도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6]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보건서비스 인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폭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무더위 휴식시간제(38.8%)와 폭염 문자 서비스(34.2%)가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여성,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사람 및 육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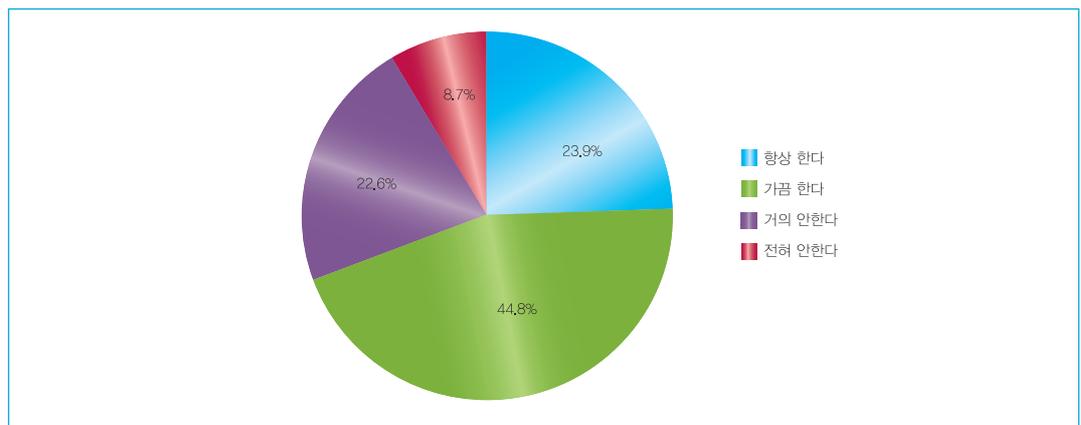
[그림 7]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폭염서비스 인지도



○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분을 섭취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항상 한다(23.9%)와 가끔 한다(44.8%)는 응답이 많았고, 전혀 안한다(8.7%)는 매우 적었음

- 폭염 경보 발령시 수분 섭취 및 휴식과 같은 대응 행동 여부를 결과 변수로 다변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자에 비해 여자(1.89배)가, 20-30대 연령군에 비해 60세 이상(1.78배) 연령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그림 8] 폭염 주의보 발령시 행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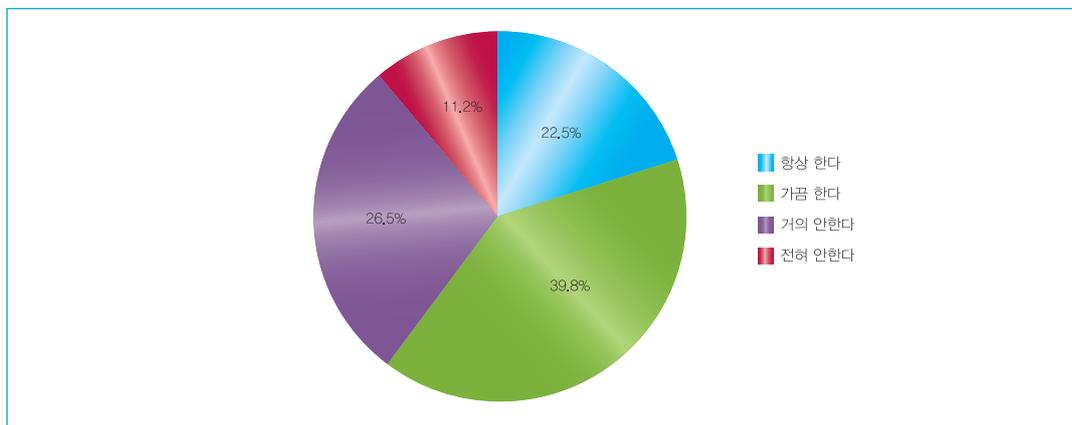
〈표 2〉 조사대상 특성이 폭염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수 분석*

	응답(%)	전체(%)	교차비	95% 신뢰구간	P
성별					
남자	298(61)	491(49)	1	-	
여자	389(76)	509(51)	1.89	(1.39, 2.58)	< 0.001
연령군					
20-39세	249(64)	390(39)	1		
40-59세	279(69)	406(41)	1.27	(0.93, 1.75)	0.14
60세 이상	159(78)	204(20)	1.78	(1.10, 2.88)	0.02
학력					
중졸 이하	134(78)	170(17)	1		
고졸	272(67)	408(41)	0.83	(0.50, 1.36)	0.45
대졸 이상	278(67)	416(42)	0.86	(0.51, 1.46)	0.58
직업					
무직	237(64)	372(37)	1		
비육체직	74(64)	116(12)	0.91	(0.65, 1.28)	0.59
육체직	376(73)	512(51)	0.87	(0.54, 1.40)	0.57
정치적 성향					
보수적	344(68)	503(50)	1		
진보적	302(68)	446(45)	1.18	(0.88, 1.58)	0.26
무응답	41(80)	51(5)	2.00	(0.96, 4.14)	0.06
종교					
있음	273(65)	420(42)	1		
없음	414(71)	580(58)	1.20	(0.91, 1.59)	0.19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를 위하여 적용한 표본추출방법에서 지역을 제외한 성별 ·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줄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항상 한다(22.5%)와 가끔 한다(39.8%)로 많았고, 거의 안한다(26.5%)와 전혀 안한다(11.2%)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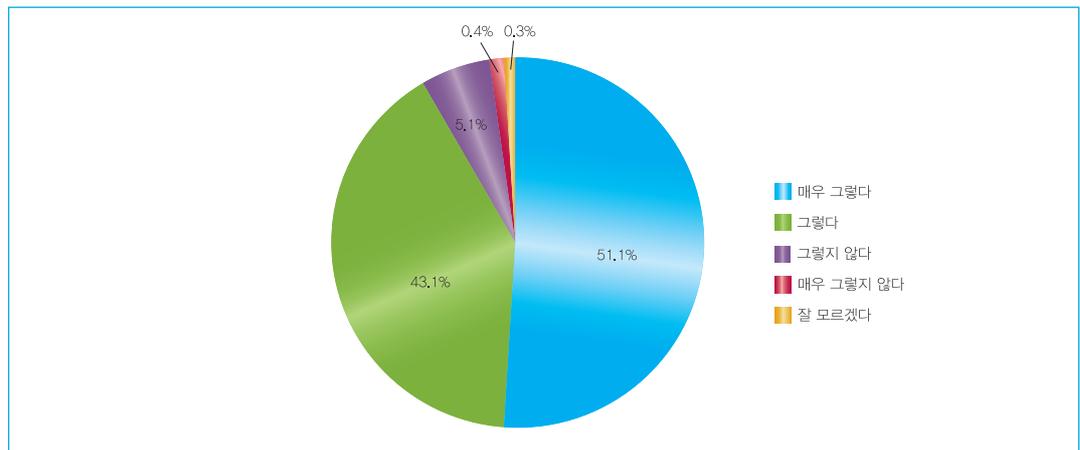
[그림 9] 황사 경보 발령시 행동 여부



□ 정부의 예산투자에 대한 의견

○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1.1%)와 그렇다(43.1%)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에 사람에 비해 진보적인 사람이 동의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황사경보 발령시 행동 여부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시사점

○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황사나 신종플루 등과 비교해서 다소 낮은 편이었음. 반면에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시급함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현재와 향후 10년 이내로 응답하여 비교적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특성이 기후변화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기후변화를 건강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2배가량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20-30대 연령군에 비해 3배 정도 높았고, 정치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경우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향후 기후변화 건강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시 고려할 요소로 생각됨

○ 현재 우리나라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보에 대한 인식도를 질문한 결과에서 황사주의보나 폭염주의보가 매우 높았던 것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폭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정책제언

-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 실시 및 활용
 -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인식 개선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인식도 조사결과는 정부와 국민의 위험 소통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향후 국민인식도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은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 대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질병이자 관리 질병인 열사병에 대한 인식이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낮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나 사고의 빈도가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폭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노인과 여성을 비롯하여 교육 수준이 낮거나 육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음

김남순(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6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

발행인 : 정기혜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Tel 02)380-8000 FAX 02)352-9129 <http://www.kihasa.re.kr>